오감 자극 '얼마나 오렌지'

29일까지 '얼마나 오렌지'전,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글라스 폴리곤
'몸의 치유' 포커스, 임용현·조은솔 등 10명 참여…20일부터 VR전시도

정승원 작가의 작품 '연결'

튤립과 수선화, 이제 막 푸른 물이 오르기 시작한 나무. 아름다운 양림동 숲 속에 문을 연 '오렌지 리조트'에 다녀왔다. 온통 오렌지색으로 장식된 식탁에 앉아 근사한 대접을 받았다. 오렌지빛 메뉴판을 펼쳐든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오렌지 요리, 배경 음악, 퍼포먼스와 사진 촬영. 배경음악으로 '시네마틱'을 선택하고 예쁘게 모양을 낸 상큼한 오렌지를 먹었다. 선택한 퍼포먼스로는 '시카고' 중 '올 댓 재즈'를 들었다. 이 모든 건 김영남·구혜영 작가의 작품 '오렌지 리조트'다. 노래 등 퍼포먼스는 구 작가가, 안내는 김 작가가 맡았다.

즐거운 경험을 하게 해준 건 전시 '얼마나 오렌지'전이다. 오는 29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글라스 폴리곤 등에서 열리는 이번 기획전은 오감으로 체험하는 전시다.

전시를 만든 박계연 독립 큐레이터는 지난해 호랑가시나무창작소에서 인상깊게 관람했던 '당신의 ㅅㅅㅈㅈ'전의 기획자다. 코로나 시대, 프랑스 미래학자 아탈리가 문화예술의 새로운 주제로 꼽은 '시간, 죽음, 슬픔, 장례식' 의 첫글자를 딴 전시였다.

지난해 전시가 정신적 치유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번 전시는 '몸의 치유'를 중심에 두고 기획했다. 모든 활동이 가상적인 공간에서 이뤄지면서 '몸'이 증발해 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고 전시장에서 그 감각을 일깨우고 활기를 되찾는 여행을 떠나자 싶었다. 감각을 깨우는 장치로는 오감을 자극하는 '오렌지'를 떠올렸다.

전시에는 지난해 참여했던 6명의 작가를 비롯해 임용현·조은솔·정승원·구래연작가 등 모두 10명을 초청했다. '전시장이 오렌지의 침공을 받는다'는 컨셉 아래 작가들에게는 몸에 대한 사유가 담긴 작품을 제작하되 '오렌지'를 재미있게 해석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번 전시는 갤러리로 가는 길부터 즐겁다. 4월의 숲에 자리한 전시장은 오렌지 왕국이라는 재밌는 컨셉으로 꾸몄다. 거대한 오렌지가 나무에 걸려 있고, 오렌지 왕국 문장(紋章)을 새긴 국기도 펄럭인다.

참여 작가들은 우리 몸과 밀접한 숨, 감각, 소통, 기억, 권력 등 다양한 주제를 찾았고 작품은 각자 나름의 오렌지를 품고 있다.

김해연 작가의 'Dr. 오렌지:임상 기록 1'은 텍스트와 사운드, 사진이 어우러졌다. 후각, 미각 등 코로나로 이상 징후를 보이는 감각 기관에 대한 '심리평가'를 기록한다는 유쾌한 컨셉으로 '닥터 오렌지의 상담실'을 찾는 이들은 헤드폰으로 '코'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눈으로는 다양한 텍스트를 읽는 경험을 한다.

서법현 작가는 개인적 서사를 소재로 회화 작품과 픽셀 작품을 전시중이다. 정승원 작가의 설치 작품 '연결'은 코로나 시대, 우리가 놓치고 있는 터치의 의미를 알려주는 작품이다. 길게 드리워진 수많은 오브제를 만지고, 그것들이 부딪혔을 때 나는 소리를 들으며 '연결'을 꿈꾼다.

조은솔 작가는 코로나 시대 일상이 된 '손 씻는 일'에 대한 이미지를 설치와 회화 작품으로 구현했다.

김지희 작가의 '생각하는 사람' 등의 작품은 땀, 피부 조각, 체취 등이 담긴 헌 옷과 골판지로 만들었다. 얼기 설기 만들어진 조각들의 제스처와 표정이 묘한 느낌을 주는 작품들이다.

홍준호 작가는 회사원 시절, 과로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섰던 자신의 신체 내부를 촬영한 MRI 사진 등을 중첩시켜 색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몸에 피어난 꽃'을 선보인다. 그밖에 임용현 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 '감각이주', 구래연 작가의 '삶과 죽음의 모뉴먼트'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다. '오렌지 리조트'는 매주 토·일요일(30분·일 5회) 예약(https://bit.ly/3iWTCs4)을 통해 관람객이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쁘게 꾸며진 오렌지 쥬스 스테이션에서 오렌지 쥬스를 구입하면 정승원 작가의 오렌지 스티커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 또 SNS에 전시를 업로드한 관람객에게 착즙 쥬스를 무료 제공하며 20일부터는 VR전시(www.chronotope.co.kr)도 열린다.

전시는 '유기농 오렌지주스 조이', '크로노토프' 등이 후원했다. 오전 10시~오후 6시.호랑가시나무 홈페이지 참조.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해연 작가의 'Doctor 오렌지:임상 기록 1'

호랑가시나무 폴리곤에서 열리고 있는 '얼마나 오렌지'전에서는 '몸'과 오렌지를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 딸 릴리와 광주 온다

5월 3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8일 티켓예매…브람스 등 연주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가 광주에 온다.

광주문화예술회관 포시즌 '미샤 마이스키 첼로 리사이틀'이 오는 5월 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날 무대에서는 클라라 슈만·브람스·피아졸라 등의 곡을 선보이며, 그의 딸이자 피아니스트인 릴리 마이스키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 부녀 사이인 이들 듀오의 한국 공연은 2017년 이후 5년만이다.

이번 공연은 클라라 슈만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3개의 로망스 Op.22'를 시작으로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Op.78', 브리튼의 '첼로 소나타 C장조 Op.65', 피아졸라의 '르 그랑 탱고'로 이어진다.

이 시대 최고의 비르투오소로서 독주와 실내악 분야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마이스키는, 여전히 힘있고 다채로운 연주로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마이스키는 퍄티고르스키에게 사사했으며 카사도국제콩쿠르에서 1위로 입상한 후, 카네기홀에서 성공을 거둠으로써 이름을 떨쳤다. 이후 20여년 간 필라델피아필하모니·빈필하모니·런던필하모니 등 세계적인 악단들과 협연했으며, 독주자로서 세계 각국을 돌며 공연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소녀 첼리스트 장한나를 세계 무대에 올려놓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그리운 금강산', '청산에 살리라' 등의 한국 가곡을 자신의 음반에 레코딩하는 등 한국음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진 첼리스타다.

5월 광주공연 무대에 오르는 미샤 마이스키와 딸 피아니스트 릴리.

그는 앞서 지난 2020년 한국 투어가 예정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투어가 취소됐고 올해 공연을 재개했다. 문예회관 유료회원 선예매는 4월 8일 오전 10시, 일반예매는 오후 5시부터 가능하다.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예매. 문의 062-613-8235.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황금나무 열매 찾아 떠나는 신비한 모험

극단 토박이 '하티와 광대들', 16~17일 ACC 어린이극장

한 나무에 모양과 맛, 색깔이 같은 열매가 있다. 오직 먹어야만 알 수 있는 생명열매와 죽음열매가 그것. 고대 인도설화 '생명열매, 죽음열매'〈사진〉는 인간의 고귀한 희생과 생명, 죽음에 대한 질문이 담긴 이야기다.

'굽타'왕과 '아소'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고귀한 희생·생명·죽음에 대한 질문을 찾아 가는 모험을 담아낸 어린이 연극이 관객들을 찾아온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황금나무 열매를 찾아 떠나는 아이들의 모험을 그린 '하티와 광대들'을 오는 16~17일(오전 11시, 오후 3시)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에서 선보인다.

작품은 비슈느 신이 지키는 황금나무 열매를 찾아간다는 설정에서 확장된다. 치밀한 구성과 아울러 인형과 가면, 그림자 등을 활용해 사물을 다양하게 표현했다. 특히 인도풍의 음악과 화려한 의상은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무대장치와 소품을 매개로 변신하는 거대한 코끼리는 또 다른 볼거리다.

극단 토박이가 제작한 이 연극은 지난 2019~2020년 ACC 아시아스토리 어린이 콘텐츠 제작 공모를 통해 선보였으며 삶에 대한 질문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표현했다. 전석 1만원,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탄생 110주년 백석 시인 '올해의 아이콘' 선정

올해로 탄생 110주년을 맞는 백석 시인(1912~1996)은 소월과 지용이 토대를 닦은 현대시의 영역을 넓힌 시인이다. 평안 방언을 비롯해 지역의 언어를 시어로 활용해 모국어를 풍성하게 일궜다.

교보문고가 오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올해의 아이콘'으로 백석 시인을 선정했다. 이를 토대로 발표된 산문과 시를 합본한 한정 소장본을 제작 판매한다. 등단작인 단편소설 '그 모(母)와 아들'(1930), 마지막 발표작인 시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1948) 등을 묶은 '백석 정본'을 단독 한정 판매한다. 책을 구매한 독자에게 마그넷과 유리 문진 등을 준다.

한편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책의 날은 카탈루냐 지방에서 책과 장미를 선물하는 성 조르디 축일과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가 사망한 날을 기념해 제정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CC 라이브러리파크, 수·토 밤 8시까지 연장 운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ACC)의 5개원 가운데 하나인 문화정보원에는 라이브러리파크가 있다.

이곳은 아시아 문화예술 관련 전문도서 6만6000여 권을 갖춘 도서관 외에도 자료 열람과 체험이 가능한 박물관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이곳을 방문한 이들이 도심 속 휴식을 취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서비스 공간도 있다.

ACC는 라이브러리파크 운영시간을 6일부터 매주 수·토요일 오후 8시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기존 개관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였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관일)

이에 따라 낮 시간대에 라이브러리파크 이용이 용이하지 않았던 직장인을 비롯해 학생의 불편이 해소될 예정이다.

한편 이용자들은 아시아 문화예술과 관련된 도서 및 자료 열람, 전시 및 실감 콘텐츠 체험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문의 1899-556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